

환율 940원 붕괴

■기업 환리스크 관리 방법은?

중소수출업체 금융기관 적극 이용해야

신진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담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24일 전날보다 8.8원 하락한 939.8원으로 급락하면서 기업들이 환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대기업의 경우 비교적 환율 변동에 따른 다양한 안전판을 마련하고 있는데 비해 중소기업들은 상당수가 환율 위험에 무방비 상태여서 최근의 환율 급락으로 재산성 악화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최근 1천만달러 이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환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는 업체는 2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적극 이용하라' =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전문컨설팅을 받아 환리스크 관리에 나설 경우 해정을 통해 환차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을 적극 이용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최근과 같이 원·달러 환율 급락기에 기업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환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현물매도, 선물환매도, 옵션, 스왑 등이 있다.

현물매도는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외화를 그때그때 팔아 치우는 방식이다. 앞으로의 환율 움직임을 예상하기 힘든 만큼 당장 팔아 치우자는 것이다.

이어 중공업체들이 주로 이용하는 환리스크 관리방법으로 선물환매도 방식이 있는데, 이는 앞으로 환율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 미리 일정수준의 환

본사-해외지사간 발생 채권·채무 차액만 결제

“환율 단기 급락... 과도한 선물환 거래는 피해야”

율을 정해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아울러 미래 일정시점의 환율에서 매도·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옵션과 해외 채권시장 등에서 달러부채를 원화부채로 바꾸는 통화교체스왑(CRS) 등도 환헤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수출보험공사에 보험을 들거나 해당국 통화대출을 받아 결제하는 방법도 있으며, 기업 내부적으로 본사와 해외지사간에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를 일정시간이 지난 뒤 차액만을 결제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전문가 “아직은 견딜만·환위험 관심 절실” = 전문가들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으나 아직은 견딜 만한 수준이라며 성급한 환헤지 노력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들도 상당수가 원·달러 하락을 지속적으로 감내했기 때문에 자생력이 있다”며 “최근 상황도 힘들기는 하지만 아직은 견딜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오시창 외화자금운영팀장은 “단기적으로 환율이 급락했기 때문에 추가하락의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수출업체 입장에서 과도한 선물환 거래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환율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업들이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버티고 있다며 무엇보다 환리스크 관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한국금융연구원원의 이운석 박사는 “업체들마다 현금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리스크 관리방안을 정하기는 힘들다”며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환리스크 헤지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특히 “국내 기업들은 파생상품 투자를 리스크헤지의 수단이라 수익을 내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오시창 팀장은 “장기적으로 환리스크를 헤지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기업 소식/

중형세단 '로체 연비왕 선발대회'

기아차는 22일 중형세단인 '로체 연비왕 선발대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대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일반 참가자 10팀과 로체 보유자 10팀 등 20팀이 참가, 압구정동 국내영업본부에서 영종도 하얏트호텔까지 총 70km 거리를 운행한 뒤 연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8 당 평균 15.9km(자동변속기)로 주행한 이병호씨(41)가 연비왕을 차지했다. 기아차는 20개팀의 평균 연비가 8 당 14.8km로, 로체의 공인연비 10.9km보다 3.9km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로체의 연비를 입증하고 경제적인 운전습관과 올바른 운전문화를 체험토록 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LCD매출 33억4천만달러 세계 1위

삼성전자가 올해 1·4분기 LCD(액정표시장치)전체 매출액 33억4천만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의 집계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10인치 이상 대형 LCD 분야에서도 매출액 28억6천만달러, 출하량1천240만대로 정상상을 차지했다. 지난 3월 실적에서도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11억9천만달러)과 대형제품 매출(10억2천만달러) 및 출하량(422만대)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에서는 11개월 연속, 대형 LCD 시장에서는 6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내달 16일까지 '정관장 사랑의 축제'

한국인삼공사는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정관장 5월 사랑의 축제'를 연다. 인삼공사는 이 기간동안 정관장 제품 15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최고급 홍삼비누인 '진스파'를 증정하고 정관장 멤버스 회원중 우수고객은 '정관장대 골프대회'에 초청한다.

또한 특별상품으로 홍삼톤 마일드 3만개를 7만원에 한정 판매하고 전국 정관장 가맹점에서는 BC·KB·LG·삼성·현대카드에 대해 2~3개월 무이자 할부행사도 실시한다.

'환경 마케팅대상' 사회공헌부문 대상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가 지난 21일 한국경제가 주최하고 열린경영연구원 주관하는 '환경 마케팅대상' 사회공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보해는 창업자인 고 덕천 임광형 회장이 지난 1981년 설립한 보해덕천장학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해덕천장학회는 설립 후 올해까지 3천여명의 중·고·대학생들에게 26억3천7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1984년부터 광주·전남지역 소년소녀가장을 격려하기 위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광주지회협의회가 주최하는 '덕천 청소년 선도대상'을 후원하고 있다.

■ '난관봉착 현대차' 증권가 동향도 가지각색
같이탈까? 말까?...시장은 불확실

“글로벌 도약 흔들” VS “엘라베마 효과”

정몽구 회장의 소환으로 검찰의 현대차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증권가면으로 다가서는 수사 움직임과 달리, 환율,유가 악재와 강도를 더해가는 일본업체들의 견제,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 악재만 악재는 모두 표면화된 현대차의 전망에 대해 증권가들은 '백가장명'의 전망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현대차도 27일로 예정된 실적발표일에 별도의 투자설명회(IR)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은 한동안 향후 실적전망과 경영전략에 대한 현대차의 솔직한 입장을 들을 기회도 얻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실적, 기대치는 맞췄는데 = 삼성증권은 24일 현대차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코멘트에서 이 회사의 분기 영업이익이 4.5%, 계절성 및 일회성 요

인을 제거한 영업이익률이 4.2%선일 것으로 추정하며 “기대치와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투자증권 서성문 애널리스트도 “1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대비 8.4% 증가한 6조7천억원, 영업이익은 10.7% 감소한 2천883억원으로 예상돼 영업이익률이 4.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환율을 고려하면 견조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여닝 쇼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코스피지수의 사상 최고치 돌파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모두 만회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 같이탈까 말까' = 지난해 중시 최고의 선도주중 하나였던 현대차가 위기국면에 진입하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고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현대차의 '글로벌 플레이어' 도약을 믿고 장기

투자에 나서야 할 지, 아니면 현대차에서 다른 종목, 업종으로 갈아타야 할 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장의 분석은 현대차를 둘러싼 환경만큼이나 불확실한 형편이다.

신영증권 조용준 리서치센터장은 자동차산업과 환율쇼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라며 자동차업종에 대한 투자자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하고 현대차의 투자대안으로 현대모비스를 꼽았다.

그러나 '현대차 낙관론'도 시장에서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굶토닝신한증권 용대인 애널리스트는 “1분기 실적은 예견된 부진을 확인하는 통과의례”라며 “올해 내내 만개할 '엘라베마 효과'가 현대차의 펀더멘털 개선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를 자동차업종의 '톱픽(최고관심종목)'으로 유지하면서 적정주가를 상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000억 이상 코스닥 부자 13명

코스닥 지수가 700선을 넘어서면서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천억원을 넘는 코스닥 주식부자가 13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주식부자 가운데 인터넷 업체의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상당수를 차지해 '인터넷 전성시대'임을 확인시켜줬다.

24일 코스닥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21일 현재 보유주식 평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13명으로 이 중 2명은 평가액이 2천억원을 넘었다. 작년 초만 해도 보유주식 평가액이 1천억원을 넘었던 코스닥기업 대주주는 김상헌(동서 대표이사)가 유일했지만 지난해 6월 7명, 12월 12명에 이어 이같이 증가세를 나타

냈다. NHN의 이해진 전라담당임원(CSO)은 지금까지 '부동의 코스닥 주식부자 1위'로 군림했던 동서 김상헌 대표를 누르고 1위에 등극했다. NHN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는 이해진 CSO는 NHN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평가 금액이 2천878억원에 이르렀다.

이어 동서 지분 36.53%를 보유한 김상헌 대표가 2천558억원을 기록해 나란히 2천억대 주식 부자 대열을 형성했다.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와 지엔텍의 정봉규 대표는 각각 1천892억원, 1천853억원으로 3,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1천억 이상 코스닥 부호 (단위: 원)

기업	대주주	평가액(4월21일)
NHK	이해진	287,765,398,800
동서	김상헌	255,787,865,000
서울반도체	이정훈	189,162,387,550
지엔텍	정봉규	185,345,181,000
메가스터디	손주은	178,885,002,000
네오위즈	나성근	168,639,067,600
태웅	허용도	139,977,609,000
다음	이재용	123,970,000,000
쓰리세븐	김형규	108,870,000,000
대양이앤씨	이준욱	107,661,200,000
비에스이	박진수	107,658,144,000
인철수연구소	안철수	103,788,000,000
SSCP	오주연	103,978,097,000

5위와 6위는 최근 코스닥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메가스터디와 네오위즈의 대표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기내서 피부관리해 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은 5월부터 장거리노선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 뷰티서비스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3개국 시가총액 30위사 이익창출 능력
美 18.79% > 韓 14.65% > 日 8.46%

국내 기업의 이익 창출능력이 일본 기업보다는 앞서지만 미국 기업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금융 및 지주회사를 제외한 국내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의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4.6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 증시에 상장된 시총 30대 기업의 ROE 8.46%보다는 높지만 미국 증시 시총 30대 기업의 ROE 18.79%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도 미국 대형주는 14.48%에 달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9.25%, 6.5%에 그쳐 수익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연합뉴스

작년 순이익 증가율은 내수회복이 본격화된 일본 기업들이 단연 돋보였다.

일본 대형주의 순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39.74%에 달해 순이익이 16.34% 늘어난 미국 대형주를 압도했다.

한국 대형주의 순이익은 IT(정보기술) 기업의 실적악화로 10.68% 감소했다.

반면 올해 추가상승률은 향후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대형주가 가장 높았다. 한국의 시총 상위 30위 종목은 올해 주가가 9.36% 올라 일본(8.33%)과 미국(5.65%)의 대형주를 능가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OAL나라	A/S 처리 및 기기납품 설치 엔지니어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4/26	062-224-6073
기아자동차 대리점	기아자동차 대리점 신입/경력 영업직	고졸/경력무관	2,200~2,400	04/27	02-518-1654
(주)이스케이텍	생산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7	062-973-7041
(주)휴넷	SK텔레콤 114청구 고객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4/28	02-780-9595
(주)아이비에이코퍼레이션	유아교육 업무(출,유치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9	062-523-7785
신원전자정밀 주식회사	품질관리(셋제품) 전자제품제조 관리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4/29	062-944-8471
리서치앤리서치	실문지 검토 및 검증 담당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30	062-352-7375
(주)담양운천	[담양리조트] 정규직 사원(시설관리/조경/식음료)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1	061-380-5016
(주)필코스메틱	웹디자인 및 소싱을 관리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3	062-267-8071
건설화학공업(주)	영업, 기술, 총무 사원(서울/광주/안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4	031-428-0621
(주)레드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피나노코너녀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4	062-603-3522
수백물침대	[광주] 일반매장근무, 사무보조, 배송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04	02-777-4686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13평 이상 국민임대주택도
발코니 확장 가능

앞으로 전용 13평 이상 국민임대주택도 거실 발코니 부분이 확장돼 1.4~2.1평의 실거주 면적이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30년간 임대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인 주거편의를 위해 올해 대한주택공사 사법계획승인을 받는 국민임대주택단지부터 발코니를 확장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확장대상은 아파트 평면구조상 화재대피공간 확보 등이 가능한 분양면적 18평이상, 전용 13평(40㎡) 이상 주택이다.

12~25평의 11개형인 국민임대 표준 평면중 18~25평이 이에 해당한다.

평형별로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면적은 18~22평형 1.7평, 23평은 1.8평, 24평 2평, 25평 2.1평이다.

확장비용은 가구당 100만원 정도로 50만원은 입주자 보증금을 통해 나머지는 매달 2천원씩 월 임대료에 가산된다.

그러나 이미 건설중이거나 지어진 국민임대주택은 구조적으로 발코니와 거실 사이에 내력벽이 있는데다 확장에 따른 공사비의 입주자 부담문제도 확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